

미국과 남조선의 군사관계

얼마전 남조선호전세력이 미국과의 제5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라는 것을 벌여놓았다.

말그대로 《년례적》으로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전쟁모략들을 고안해내곤 하던 음모판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위협수위가 어마처럼 많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해야 할 것이다.

골방에서 논의된 내용이라는 것이 조선반도에서의 전면전에 대비한 《작전계획 5027》, 공화국에 대한 선제공격을 노린 《작전계획 5015》, 그 무늬 《군비사태》를 가상한 《작전계획 5029》 등 기존의 부침전쟁계획들을 전면 수정보충한다는 것이다.

특히 1차적으로 《작전계획 5015》를 수정보충하겠다고 한다. 공화국에 대해 《적대의사가 없다》고 공식 선언했던 미국이나 《평화》를 넘볼처럼 위우던 남조선당국이 자기들의 검은 본심을 드러낸 무모하고 무분별한 모의판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신》의 또장된 대결, 《평화》가 가장한 전쟁을 추구해왔다는 것도 더욱 명백해졌다. 미국의 망동은 경색된 북남관계를 저들의 패권주의 전략실현을 위한 도구로, 조선반도를 대륙침략의 전초기지, 병참기지, 발전기지로 만들어 놓는 음흉한 타산만에 계획된 것이다.

그런 속심으로 전쟁계획들의 수정보충은 물론이고 남조선당국 미군의 현상유지와 순환배치를 《미끼》로 던져주면서 남조선당국의 전사전통제권반환요청도 묵살해버린 것이다. 남조선호전세력을 《동맹》의 사슬에 더욱 얽어매놓고 대륙침략의 대모방으로, 돌격대로 앞세우기 위해서라는 것도 자명하다.

미국은 지난 시기 각종 침략전쟁계획들을 세워놓고 어리석게도 《기다리는 전략》에 매달리다가 궁극에는 저들의 전략의 초과산출을 자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전쟁장단에 맞추어 대결의 칼춤을 추면서 물던벌술던벌 날뛰는 남조선당국도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의 망동이 어떤 종말로 이어졌는가를 되새겨야 한다.

지금 남조선당국이 노는 행태를 보면 역사적인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고도 돌아앉아 《이 몇장의 성명에 우리의 운명을 점칠 수 없으며 또 믿을 수 없다》고 되뇌이면서 《대화있는 대결》, 《대화있는 경쟁》을 부르짖으며 공동성명의 기본정신과 합의사항을 모조리 거부하고 유린했던 《유신》독재자의 망동과 다를바 없다.

3년전의 북한선언들을 모독하고 백지화하려고 날뛰는 보수세력과 역겨운 입맞춤을 하는 꼴이라고도 할 수 있다. 강력한 자위적억제력을 갖춘 공화국에는 그 무슨 《맞춤형억제력》이란, 련합억제력세이든 그 무엇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세력들이 참으로 가련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부안하건대 물과 불처럼 평화와 전쟁은 랑밍할 수 없다. 반공화국적대세력에게는 강 대 강, 심 대 심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것이 이미 천명된 공화국의 원칙적립장이다.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 파괴하려는 위협천만만 《전쟁2차량》이 자기들의 장송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분별없는 처신일 것이다.

# 미국의 오만과 횡포에 남조선 각계가 분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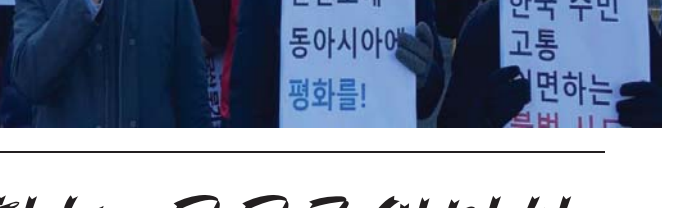
남조선에서 인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미국의 오만과 횡포에 대한 각계의 분노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미군에 의한 환경오염을 막고 생활터전을 지키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이 열기를 띠고 벌어지고 있는 것이 그 하나이다. 남조선환경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경상북도 대구시에 있던 남조선강점 미군기지 《캠프 워터》 직속기차특종의 토양, 지하수에 대한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하다고 한다.

이밖에도 강원도의 냉혈, 경기도의 하남, 경상북도의 포항 등 미군기지들에서도 기준수치를 훨씬 넘는 발암물질들이 검출되었다고 한다. 실례가 이렇듯에도 불구하고 남조선국방부는 올해에 들어와 강원도 춘천시에 있던 이전 미군기지에 대한 1차정화비용으로 수십억여원을 지

급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남조선의 각계층에서는 《미국이 필요하면 전쟁연습도, 세계최대의 미군기지까지 지어준다. 미국이 실컷 쓰다 오염시킨 기지를 돌려받으면서도 환경정화비용을 환풍도 못받아낸다. 조국강토도 평화도 다 내주고 우리 돈까지 퍼주는 동맹이 과연 바람직한 동맹인가》라는 비판과 분노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 있다.

얼마전 《은전환 생태평화 공원조성을 위한 통산시민회의》가 통산미군기지의 심각한 환경오염에 대한 정화비용을 미군이 부담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는 시민문화제를 열었다고 한다. 문화제에서 발언자들은 통산공원이 온전하게 조성되기 위한 절실한 문제는 통산미군기지의 환경보고서를 공개하고 세금을 제때에 바치지 않



문화제 정부 마지못한 한미 SCM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남조선을 생화학무기시험장으로

얼마전 미국이 남조선에 미군기의 생화학무기시험장 순환배치하겠다고 한다. 미국방성이 진행한 해외주둔 미군배치검토가 완료된 데 따른 조치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남조선 각계층에서 미군의 생화학무기시험장 유입을 반대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의 범죄적책동은 남조선전역을 생화학무기시험장으로 전락시키고 조선반도에 반인륜적인 대대양을 몰아오려는 범죄적기도의 발로이다. 미국이 지난 조선전쟁시기 우리 민족을 대상으로 세균전쟁을 감행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1952년 《세계평화회의》와 《국제민주법률가협회》가 작성한 보고서들에는 미군이 조선반도의 여러 지역에 세균독탄을 투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생화학전을 감행한 자료들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미군은 전후에도 남조선에서 국제법에 어긋나는 여러가지 세균무기시험을 계속하여 왔으며 지어 대량의 렴화우라늄을 탐까지 비축해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군수업체와 남조선주둔 미군군사시설실 위태운 영업기업들이 부산과 대구, 왜관, 서울, 동두천, 청진시 진해부를 비롯한 미군기지에서 각종 생화학관련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모집하는 광고까지 낸 사실이 얼마전에도 드러났다.

남조선에서 불행과 재앙을 당하든말든 저들의 세계제패 야망만 실현되면 그만이라는 것이 바로 미국의 흉심이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미국을 가리켜 우리 겨레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라고 하면서 미군이 없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란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합치고 있다. **본사기자 전 명진**

## 과침의 길로 질극하는 군국주의마차

일본에서 첨단무기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에도 일본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개발중에 있는 순항미사일의 사거리를 1000km 이상으로 늘려 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5년까지 지상대상미사일의 실전배치준비를 끝내고 함정탑재용미사일은 2026년에, 전투기탑재용미사일은 2028년에 시제품을 만들기로 작정하는 등 미사일개발과 성능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금 일본은 공화국과 주변나라들의 《위협중대》를 운운하면서 저들의 군사력증강을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공격무기개발은 결코 자국의 방위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 러면에는 불순한 기도가 깔려 있다.

일본이 개발하려고 하는 순항미사일의 사거리는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까지 다 포괄한다. 주변국들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일본의 장거리 순항미사일개발은 조선반도와 그 주변나라들에 대한 선

제타격을 갖추자는 것이며 장차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제침야망을 기어 실현해 보려는 호전적인 야심으로 부터 출발한 것이라고 봐도 틀리

다 볼 수 없다. 일본은 전범국가이다. 《평화헌법》에 의해 일본은 고전권과 전쟁무력을 가질 수 없다. 또한 전시방위를 원칙으로 삼게 되어 있다.

그러나 겨레의 자금이 투입되는 군사항목들은 어느 것을 막론하고 순항미사일을 보유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본이 떠드는 《평화헌법》과 전수방위원칙과는 심히 어긋나는 것이다. 현재 맹렬히 질주하는 일본이라는 군국주의마차의 고삐는 새로 등장한 정부가 쥐고 있다.

남조선의 선거정국이 날이 갈수록 우수선전되고 있다. 특히 여야당은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키기 바쁘게 상하후보의 발인 하나, 움직인 하나에도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무차별적인 인신공격과 막말비난전에 여념이 없다고 한다.

이로부터 여야당은 청년층 정치참여에 사활을 걸고 저지마다 청년문제와 관련한

20, 30대의 청년층에 대한 여론조사들에서는 《아직 지지후보를 정하지 못하였다》는 응답자가 68%, 《지지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응답자가 56% 정도로 달하는 등 무당층이 적지 않게 나타났다.

이로써 여야당은 청년층 정치참여에 사활을 걸고 저지마다 청년문제와 관련한

말투를 들러싼 당내분란이 이어지며 젊은층의 지지를 잃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한 정치평론가는 《주52시간제, 김종진, 리준석 모두 윤택의 정치적, 정책적 역량에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대상이 큰 행보》라며 《주52시간제발원의 경우 로동현실, 청년일자리

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부족해서 튀어나온 발언에 가깝다. 청년층은 윤석열후보의 발언에 대한 불신과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예평하였다. 남조선의 한 언론도 《혁신을 멈춘 야당에 대한 민심이 쇠고 있다. 윤석열후보가 선택된 후 사활을 걸고 헌법 불복효를 냈다.》고 평하였다. 남조선의 여론들은 더욱 치열해지는 여야간의 권력쟁탈전으로 하여 민심의 정치혐오감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하면서 《년말, 년초에 민심을 잘못 읽는 쪽의 지지를 잃는다》고 경고하였다. **본사기자 류현철**

## 정치혐오감만 증대시키는 권력쟁탈전

남조선의 선거정국이 날이 갈수록 우수선전되고 있다. 특히 여야당은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키기 바쁘게 상하후보의 발인 하나, 움직인 하나에도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무차별적인 인신공격과 막말비난전에 여념이 없다고 한다.

이로써 여야당은 청년층 정치참여에 사활을 걸고 저지마다 청년문제와 관련한

말투를 들러싼 당내분란이 이어지며 젊은층의 지지를 잃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한 정치평론가는 《주52시간제, 김종진, 리준석 모두 윤택의 정치적, 정책적 역량에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대상이 큰 행보》라며 《주52시간제발원의 경우 로동현실, 청년일자리

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부족해서 튀어나온 발언에 가깝다. 청년층은 윤석열후보의 발언에 대한 불신과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예평하였다. 남조선의 한 언론도 《혁신을 멈춘 야당에 대한 민심이 쇠고 있다. 윤석열후보가 선택된 후 사활을 걸고 헌법 불복효를 냈다.》고 평하였다. 남조선의 여론들은 더욱 치열해지는 여야간의 권력쟁탈전으로 하여 민심의 정치혐오감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하면서 《년말, 년초에 민심을 잘못 읽는 쪽의 지지를 잃는다》고 경고하였다. **본사기자 류현철**

## 온갖 강력범죄가 성행한다

남조선에서 살인,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가 갈수록 늘어나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번져지고 있다. 지난 5년간 강력범죄건수는 해마다 늘어나 한해 평균 약 3만 2000건으로서 그것은 이전시기보다 2000여건이나 더 늘어난 것이라고 한다. 특히 미성년들속에서 강력범죄가 급증하여 사회적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

남조선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살인, 강간, 강박, 방화 등 미성년들의 강력범죄는 한해 평균 427건에 달하며 일부 강력범죄는 그 수범과 잔혹성에 있어서 성인범죄 못지않다고 한다. 2019년 12월 경기도의 초

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딸다들과정에 친구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였으며 2020년에는 대천시의 14살 난 미성년자 이훈친 승용차를 몰다가 사람을 깔아 숨지게 하였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미성년범죄증가에 대해 세계관형성이 미약한 그들이 인터넷을 통해 각종 강력범죄사건들과 그것들을 내용으로 하는 영화나 례화물들을 직접 접하면서 충동과 호기심으로부터 범죄의 길에 들어서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미성년들중 우발적으로 또는 호기심으로 범죄를 범하였다는 비율이 각각 41.9%, 36.4%로서 생활비 마련

을 핑계로 한 번이라도 강간, 성추행 등의 성폭력피해를 받았다고 한 여성은 전체 여성의 18.5%에 달하며 가정폭력건수는 5만 270건으로서 2011년의 6880여건보다 7.3배나 늘어났다고 한다. 올해에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젊은 부부가 태어난지 두 주밖에 안된 아들이 자주 울고 먹은 우유를 토한다고 하여 마구 때려 무참히 죽인 사건,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어머니가 재혼을 하면서 3살 난 딸을 집안에서 버리고 갔다 죽인 사건, 경기도 통인시에서 이모부와 이모가 집에서 키운 10살 난 조카에게 말을 잘 들지 않고 조션을 가리지 못한다고 하여 파리채

를 들고 함께 힘을 모아 싸워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남조선의 언론들은 《당국이 로점상들에게 재난지원을 주겠다고 기만하면서 로점상을 대상으로 곳곳에서 로점상행위를 명목하여 용역장대들을 동원하여 강제철거 등 많은 고통을 주고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단속과 탄압을 이겨내며 생계유지를 지켜온 로점상들이 전세계적인 악성전염병사태로 심각한 경제적타격을 입고 마지막 생존의 공간마저 내몰리게 될 비참한 처지로 산생된 필연의 결과》이라고 분석하면서 《우리 사회는 여전히 빈곤과 불평등이 심각한 사회》라고 평하였다. **본사기자 안권일**

## 《불평등을 다파하고 생존권을 쟁취하자》

- 남조선에서 《전국민대회》 진행 -

남조선언론들이 보도한데 의하면 서울에서 빈곤사회연대와 민주로점상전국연합 등 각계층 로동운동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최로 《2021 전국국민대회》가 진행되었다고 한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회참가자들은 로점상

민, 로양진수산시장 상인, 개발지구 주민, 장애인, 로속인 등의 의제를 내세우고 《법도 바야이 면지다!》, 《불평등과라! 빈민생존권 쟁취!》의 구호 밑에 사회적으로 배척받고 차별받는 빈곤의 문제해결을 강하게 요구해나갔다. 앞서 진행된 로동자대회, 농민대회에 이어 진행된 이날 빈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은 강평을 동원한 로점상 강제철거, 개발지구 강제집행으로 거리에 내몰린 철거민, 로속인에 대한 형벌화조치, 장애인등에게 가져다지 등을 규탄하

며 강제철거종단과 로점상생계보호를 위한 특별법제정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여러 단체의 대표들은 《로점상도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빠빠지도록 일을 해도 평생 적자인생인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없이 로점상을 굶지 않고 있다.》 《농민들은 해마다 겨울이면 아스팔트농사를 짓는다.》고 토로하면서 불평등을 다파하고 생존권을 쟁취하자고 호소하였다.

또한 참가자들은 차별과 불평등을 같이었고 비정규직을 철폐해 가진자들의 돈잔치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로동자, 빈민, 민중이 함께 싸워야 불평등을 없앨 수 있으며 매년 1월 민중총



남조선언론들이 보도한데 의하면 서울에서 빈곤사회연대와 민주로점상전국연합 등 각계층 로동운동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최로 《2021 전국국민대회》가 진행되었다고 한다.

## 단평 《검찰독재》호의 운명은...

남조선에서 《국민의힘》이 이끈 지리전 선철에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를 구성했다고 한다. 앵들아져 뛰쳐나갔던 당대표 리준석과는 술 한잔 사먹이 주고 《화해》를 하고 치우 부리 온다 안온다 원새기 꼬던 김종인은 《총괄》이라는 직함을 주어 버리고, 그런 식으로 굶어오야 똑딱거리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서인지 한간에서는 《폭탄 주 마시고 총출항》 《윤석열 호》, 《반창고로 뺨칠한 선대위》라고 한다. 이쯤까지 지었는데 그 무에 《살리는 선대위》라든지, 무엇을 살리는가. 어느 한 녀성정치인이

《해석》을 달았다. 《전두환의 군부독재 살리고, 탄핵당한 박근혜 살리고, 또 검찰권력 살리는 선대위》라고. 《전두환이 정치를 잘했다.》고 한 것도 모자라 《5.18정신》을 《성역화대장, 특별법까지 제정해서 토론회조차 막아버리는 운동》이라고 모두한자를 공동선대위장으로 임명하였던 윤석열이 고보면 《전두환의 군부독재살리기》가 틀리지 않는다.

권력을 잡으면 계가 감옥에 처박은 박근혜를 먼저 《사기》시키겠다고 했으니 《박근혜살리기》도 맞는 말이다. 또 윤석열의 선대위를

《검찰공화국출현의 예고편》이라고 민심이 평하고 있으니 《검찰총살리기》도 아니 뎨 골똥에서 나는 연기로 볼 수 없다. 그러나 남조선인민들의 불투명에 의해 밀려났던 보수세력을 살리는 선대위라는 의미인 것이다. 말로는 민생을 살리고 어찌고 하면서 《정권교체》를 운운하더니 결국은 저들이 살아나고 분주량을 피우는 꼴이다. 그런 윤석열을 권력의 자리에 올려놓자고 리준석은 인터넷까지 활용하면서 《가부기》에 열었고 김종인은 총지휘를 하느라 팔을 썩인다. 그대 들어가는 여인이 《조

련사는 예술이 당대표, 《주도권을 거머쥔 김종진》이다. 윤석열은 뭘 하는가. 흔히 말하는 《얼굴마담》이다. 김종진과 리준석이 하라는 대로 옷을 바꿔입으려면 바뀌고 거리에 나가자면 또 나서고. 최순실이 하라는대로 박근혜가 놀이판 식이다. 윤석열을 보고 《남자 박근혜》라고 조소했건 것이 우연치 않다. 《윤석열》호는 똘똘한 윤석열은 이름만, 얼굴만 있다. 그런 윤석열이 《국민의힘》이어서 남조선인민들이 등을 돌리고는 것이다. 이제 《윤석열》호는 독재부활을 향해 부지런히 노를 저어갈 판이다. 장차 어떤 파도에 부딪힐 지도 모르고. **김정혁**